

“넓은 집 ‘반 값’에 고치세요” 서울시, 주거지 집수리 100억 투입

#은평구 불광동에 지은 지 30년이 넘는 다세대주택은 건물이 노후 되면서 몇 년 전부터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고, 외벽을 통해 빗물이 침투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거주환경이 열악해졌다. 소유자가 여러 명인 공동주택 특성 상 각자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때문에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때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알게 됐고, 공사비 지원을 통해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유자들이 합심해 공사업체를 선정해 옥상과 외벽 방수 등을 시행했다.

오래된 저층주거지·공동주택 지원 공사비용 최대 50%까지 보조금 미관 개선·에너지 사용 감소 효과

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보조금과 용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 금액인 총 100억원(보조금 1000건, 용자금 300건)을 집수리 사업에 투입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단열·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용도와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다.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지원건수가 전년(2018년)보다 약 12배, 지원금은 약 16배 늘어나는 등 매년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집수리 비용 때문에 선뜻 집을 못 고쳤던

시민들이 총 1247건의 집수리 지원금으로 약 81억원을 받았다.

또 올해부터는 도시미관을 개선할 경우 최대 500만원, 창호·단열 공사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경우 공사비의 10% 내 추가 지원금을 신설한다. 노후 주택 성능을 개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방치돼 있는 민간 소유 빈집도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91%는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68.8%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방치돼 있는 민간소유 빈집에 대해서도 집수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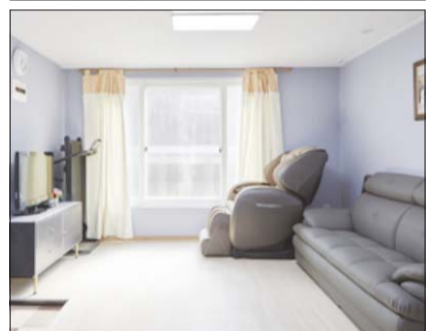
시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따로 작성했던 지원 신청서도 하나로 통합한다. 집수리 교육을 받은 시공업체를 공개하는 ‘공사업체 등록제’도 올해 본격 시행한다. 건축분야 전문가가 방문 상담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도 계속 지원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집수리 지원 보조·용자금 신청서를 2월15일~7월30일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을 통해 상시 접수한다. 신청은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

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15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겠다”며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밀집지역의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홍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호와 내단열 공사를 한 사례. /서울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책 공모 지역별 맞춤 사업에 15억 지원

서울시, 자치구 대상 특화사업 공모 미세먼지 배출 저감·신기술 중점 지원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1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는 20개 자치구가 사업을 신청,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초구, 동대문구, 강남구 등 16개 구가 최종 선정됐다. 서초구는 대기중 미세먼지 포집효과가 뛰어난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마을버스 148대 전면부에 부착해 운영한 결과 5년생 나무 5691그루에 상당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문래역앞 유동인구가 많은 문래초등학교 내에 미세먼지 쉼터를 설치했으며, 송파구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가동 전후를 비교한 결과 가동 후 60~70%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원구는 도심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구청, 월계문화체육센터에 공기정화벤치를 설치했으며, 공기정화벤치 설치 후 설치 전보다 미세먼지가 약 49% 저감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해 선정된 자치구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미세먼지 배출과 노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올해 사업비 14억 9000만원을 투입해 시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분야별 배출저감 분야, 노출저감 분야, 신기술 분야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과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3월8일까지 서울기술연구원(기후환경연구실)의 사전 기술검토를 거쳐 공모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3월17일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홍수 기자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하세요

서울 당직 의료기관 971곳 운영 국번없이 120, 119서 안내

서울시는 설날 명절 연휴기간(2.11.~2.14.)에 시민이 아프면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65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하며, 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6개소 등 총 65개소가 문을 연다.

당직의료기관은 연휴기간 중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971개소가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휴일지킴이약국은 시민 편의를 위해 당직의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지정해 2605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서울시 등 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 등 7126곳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구입장소는 서울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홍수 기자

고양시, 촘촘한 교통망으로 자족도시 ‘청신호’

광역 교통망 확충·정체구간 해결

고양시의 교통지도가 몰라보게 달라진다. 동서남북으로 뻗는 광역교통망 뿐 아니라 더욱 빨라지고 한층 촘촘해진 교통망을 구축, 교통지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을 타면 일산 킨텍스에서 창릉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20여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3·5·7·9호선 환승으

로 고양과 서울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서해선은 대곡역을 거쳐 일산역까지 연장된다.

의정부와 고양을 잇는 추억의 교외선도 운영을 재개하고 경의중앙선도 더 많이, 더 자주 다녀 고양시민의 출퇴근이 편해질 전망이다.

고양신청사를 중심으로 고양~은평간 철도가 건설되고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신교통수단인 트램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업그레이드된 교통망으로 고양시민의 영역을 넓히고, 더 나아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고양시로 출퇴근 하는 미래도 상상하고 있다.

고양시는 광역 교통망 확충 뿐 아니라, 도로의 상습정체구간도 하나 둘 해결하며 교통의 질을 높이고 있다. 소외지역을 구축구석 누비는 누리버스를 운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앞장서는 등 교통 복지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경기FTA지원센터, 산업부 종합평가 1, 2위

(경기·경기북서부)

경기FTA센터, 8년 연속 1위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전국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종합 평가’에서 경기FTA센터와 경기북서부FTA센터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경기FTA센터는 2013년부터 8년 연속 평가 1위를 받으며 전국 최고

의 FTA지원센터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경기북서부FTA센터는 2019년 4위에서 2020년 2위로 두 계단 위로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컨설팅 등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전환·지원하면서 방역수칙도 지키고 기업들의 컨설팅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FTA 활용 지원사업은 각종 FTA 관련 협정 및 실무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와 산업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수출도우미’다.

지난해 경기FTA센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도 ▲FTA 종합상담 2166개사 ▲기업방문 1:1 FTA 컨설팅 621개사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282개사 ▲지역순회 교육 및 설명회 77회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냈다.

/안성기 기자

서울시, ‘엠보팅’ 시민참여단 100명 모집

온라인 전자투표 시민협치시스템 총 2600건 정책투표... 300만명 참여

서울시는 시민협치시스템 ‘엠보팅’을 운영할 시민참여단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엠보팅은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됐다. 정책결정 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재까지 2600여건의 정책투표가 진행됐다. 참여자는 약 300만명에 달한다.

엠보팅 시민참여단 신청자격은 IT 기기 활용이 가능한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참여 메인배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100명으로 구성되며 선발될 경우 2022년까지 투표 안전발굴, 시스템 개선의견, 콘텐츠 모니터링, 홍보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참여단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18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참여단 운영에 대한 엠보팅 이용안내서가 사전 제공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지침에 따라 사전 온라인 화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엠보팅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02-2133-2953)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홍수 기자